

第7回日中韓観光大臣会合共同声明

日本国、中華人民共和国及び大韓民国の観光担当大臣は、2015年4月12日、日本国の首都・東京において、第7回日中韓観光大臣会合を開催した。

前回の第6回会合が2011年5月に開催されて以来、世界の観光においてアジアの存在感が高まる中、2011年7月に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開催（2018年2～3月）が、2013年9月に東京夏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開催（2020年7～9月）がそれぞれ決定され、世界の観光デスティネーションとしてのアジアを世界に印象付ける絶好の機会が到来している。

昨年、富岡製糸場と絹産業遺産群（日本）、大運河、シルクロード（中国）、南漢山城（韓国）が世界遺産に登録され、日中韓三国の登録件数が76件と着実に増加する中で、観光資源としての適切な活用と、これを通じた各国・各地域の文化・歴史の相互理解の促進が重要となっている。

日中韓の観光担当大臣は、本会合において、今後のアジアと世界の観光において日中韓三国が果たす役割の重要性が一層増していること、東アジア地域の平和的な経済社会の発展に向けて、日中韓三国の連携と協力が一層重要となっていること、そのために三国間の観光交流拡大が必要であることを確認し、具体的方策について、以下のとおり意見が一致した。

1. 人的往来の利便性向上による日中韓観光交流新時代の幕開け

- （1）日中韓三国間の人的交流規模は、大臣会合の始まった2006年には1,384万人であったが、2014年には約1.5倍の2,047万人となり、初めて2,000万人を超えた。2020年には、3,000万人にすることを目標

に、三国が協力して交流拡大に努力する。

これを実現するために、三国は、航空路線の充実、クルーズ船の就航促進などに努めるとともに、各国内のアクセス交通の円滑化、通信環境の整備、クレジットカードなど決済環境の整備等、旅行者の利便性を向上させる措置をとることで人的往来の拡大を促進する。

(2) 三国間の観光交流拡大に当たっては、「双方向の交流」、「地域・地方の交流」、「文化・スポーツ・青少年の交流」の3つの視点に重点を置き、三国間の官民連携を推進する。

日中韓の観光当局は、民間の関係者と協力し、当面、以下のような取組の実現に向けて、実務者レベルでの協議を進める。

- ・ 姉妹都市、友好都市同士の交流に併せた交流ツアーの実施
- ・ お祭り、伝統芸能、世界遺産等文化・歴史交流の取組に併せた交流ツアーの実施と共同プロモーション
- ・ 国際的スポーツ大会を契機とした観光交流と共同プロモーション
- ・ 日中韓教育旅行シンポジウムの開催
- ・ ITを活用した旅行者サービスの高度化
- ・ 観光関係の教育・研究機関との協力関係を強化
- ・ 観光人材の育成
- ・ 三国の市場動向や観光統計などの情報共有
- ・ 日中韓三国協力事務局との協力関係を強化

など

2. 三国共同プロモーションによるビジット・イースト・アジア・キャンペーンの推進

(1) 日中韓観光交流新時代の幕開けを契機に、日中韓三国を旅の共通の

目的地として、東アジア域外を対象とした「ビジット・イースト・アジア・キャンペーン（Visit East Asia Campaign）」を、三国が連携して実施する。

（２）三国の観光当局は、民間の関係者と協力し、上記キャンペーンのため、当面、以下のような取組の実現に向けて、実務者レベルでの協議を進める。

- ・ 三国の政府観光局が、欧米等の現地事務所同士で連携し、お互いの情報を活かして共同プロモーションのターゲット層や内容などを検討する。
- ・ 三国の共同ポスター、共同パンフレット等を作成し、欧米等の旅行博において、旅行会社との商談会や一般消費者向けの展示など共同プロモーションを実施する。
- ・ 三国の旅行会社と連携してモデルコースの共同開発及び商品化を進める。

（３）三国の観光当局は、東アジア域内外を結ぶ交通の接続性と域内の周遊性向上に向け、各国の民間関係者との協力を強化し、航空路線の活用とクルーズ観光活性化等に共同して努力する。

など

３．日中韓三国の連携強化による、観光交流における質の向上

観光交流の質の向上と満足度の向上を目指し、三国の観光当局間の連携を強化する。各国の生活習慣等の違いに起因するトラブルやショッピングに関するトラブル、安全の確保、観光交流の危機時における相互協

力など、観光に関する課題の解決に向けた取組を、三国が連携して推進する。

4. 次回会合

2016 年に、中華人民共和国湖北省武漢市で第 8 回日中韓観光大臣会合を開催することに合意する。

本声明は、2015 年 4 月 12 日に日本国東京都において、日本語、中国語及び韓国語で作成され、これらは同等の価値を有する。

日本国国土交通大臣

中華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局長

大韓民国文化体育観光部長官

第七届中日韩旅游部长会议联合声明

中华人民共和国、日本国和大韩民国(以下简称“三国”)旅游部长于 2015 年 4 月 12 日在日本国首都东京举行了第七届中日韩旅游部长会议。

2011 年 5 月举办第六届会议以来,亚洲旅游在全球旅游领域中的地位显著提升。2011 年 7 月,国际奥委会决定将于 2018 年 2-3 月在韩国平昌举办冬季奥运会和残奥会。2013 年 9 月,国际奥委会决定将于 2020 年 7-9 月在日本东京举办夏季奥运会和残奥会。作为世界旅游目的地,亚洲正迎来全面展示旅游魅力的绝好机遇。

去年,中国大运河、丝绸之路,日本富冈制丝场和绢制造业遗产群,韩国南汉山城成为新的世界遗产。至此,三国的世界遗产已增至 76 项。三国将充分发挥世界遗产作为旅游资源的重要作用,让三国民众通过旅游增加对对方历史文化的认知和相互理解。

三国旅游部长认为,今后三国在亚洲乃至全球旅游领域中所发挥的作用会越来越重要,三国深化旅游合作将对东亚地区社会经济与和平发展起到极大的促进作用。三国旅游部长就进一步扩大三国旅游交流,达成了以下一致意见。

一、提升人员往来便利化，迎接中日韩旅游交流新时代

（一）三国间的人员交流规模已由 2006 年首届部长会议举办时的 1,384 万人次增加到 2014 年的 2,047 万人次，增长了 1.5 倍，首次突破 2,000 万人次。三国将共同努力，争取到 2020 年实现 3,000 万人次的互访目标。

为达成此目标，三国将促进航空和邮轮航线的扩充，各国国内交通的便利化，利用互联网、优化信用卡结算环境等，为游客提供更加便捷的旅行环境，推动人员交流规模的扩大。

（二）为进一步扩大三国旅游交流，将“双向交流”、“地域·地方交流”、“文化、体育、青少年交流”三个方面作为重点，推进三国间的政府和业界合作。

三国旅游部门与旅游业界密切合作，加强工作磋商，努力实现以下工作内容。

——结合姊妹城市、友好城市之间交流，开展旅游合作。

——结合节庆、传统艺术、世界遗产等文化历史交流，开展旅游合作和联合宣传推广。

——以国际性体育赛事为契机，扩大旅游交流和联合宣传推广。

——继续办好中日韩教育旅游研讨会。

——推进智慧旅游合作。

——加强旅游教育、旅游研究机构之间的合作。

——共同培养旅游人才。

——三国共享旅游市场动向及统计信息。

——加强与中日韩三国秘书处的合作等。

二、开展联合推广、推进“游历东方”活动

（一）以开启中日韩旅游交流新时代的大幕为契机，三国作为共同旅游目的地，吸引东亚地区之外游客，开展游历东方活动（Visit East Asia Campaign）。

（二）三国旅游部门与旅游业界密切合作，加强工作磋商，努力实现以下工作内容。

——三国旅游部门将加强各自驻欧美等地区办事处之间的合作，共享旅游资讯，研究针对共同客源层的宣传推广内容。

——三国联合制作宣传海报、宣传手册等，联合参加在欧美等地举行的大型旅游展会，举办面向业界的洽谈会、面向公众的展示活动，联合开展宣传推广工作。

——三国旅游企业联合开发、销售经典旅游线路和产品。

（三）三国旅游部门将共同努力，推动改善东亚地区域内外互联互通环境，强化与旅游业界的合作，有效利用航空及邮轮运力，促进区域内一程多站式旅游产品的开发。

三、三国强化监管，提升旅游交流品质

三国旅游部门加强合作，努力提升旅游交流品质和游客满意度，努力消除由于商业习惯和游客生活习惯不同而造成的负面影响，解决旅游纠纷，在面对公共危机事件时相互配合，确保安全，共同提升旅游安全保障水平。

四、下届会议

三国旅游部长一致同意，定于 2016 年在中华人民共和国湖北省武汉市举办第八届中日韩旅游部长会议。

本联合声明于 2015 年 4 月 12 日在日本国东京由中文、日文和韩文写成，三种文本同等有效。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局长

日本国国土交通大臣

大韩民国文化体育观光部长官

제 7 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공동 성명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의 관광 담당 장관은 2015년 4월 12일 일본국 수도 도쿄에서 제7회 한·중·일 관광 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제6회 회의가 2011년 5월에 개최된 이래, 세계의 관광 분야에서 아시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1년 7월에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최(2018년 2~3월)가, 2013년 9월에 도쿄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최(2020년 7~9월)가 각각 결정되어, 세계의 관광 목적지로서 아시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전년도에 남한산성(한국), 대운하, 실크로드(중국), 도미오카 제사장과 비단산업 유산군(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한·중·일 3국의 등록 건수가 76건으로 착실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 자원으로서의 적절한 활용과 이를 통한 각국, 각 지역의 문화·역사의 상호이해 촉진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중·일 관광 담당 장관은 본 회의에서 앞으로 아시아와 세계 관광에서 한·중·일 3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중·일 3국의 제휴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이를 위해 3국간 관광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였다.

1. 인적 왕래의 이용편의 향상에 의한 한·중·일 관광 교류 신시대의 개막

(1) 한·중·일 3국 간의 인적 교류 규모는 장관회의가 시작된 2006년에는

1,384만 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약 1.5배인 2,047만 명으로 증가하여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2020년에는 3,000만 명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3국이 협력하여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3국은 항공 노선 내실화와 크루즈선 취항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각국 주요 도시의 시내로부터 공항·항만까지의 교통 원활화, 통신환경 정비, 신용카드 결제 환경 정비 등 여행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를 통해 인적 왕래 확대를 촉진한다.

(2) 3국 간 관광 교류 확대를 위하여, 「쌍방향 교류」, 「지역·지방 교류」, 「문화·스포츠·청소년 교류」의 3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고 3국 간 민관 제휴를 추진한다.

한·중·일 3국 관광 당국은 민간과 협력하여 당분간 아래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무자 수준에서의 협의를 진행한다.

- 자매도시, 우호도시 간 교류와 연계한 교류 투어 실시
- 축제, 전통예능, 세계유산 등 문화·역사교류와 연계한 교류 투어 실시와 공동 프로모션
- 국제적 스포츠대회를 계기로 한 관광 교류와 공동 프로모션
- 한·중·일 교육 여행 심포지엄의 개최
- IT를 활용한 여행자 서비스의 고도화
- 관광 관련 교육·연구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
- 관광 인재의 양성
- 3국의 시장동향과 관광통계 등 정보 공유
-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등

2. 3국 공동 프로모션에 의한 비짓 이스트 아시아 캠페인 추진

(1) 한·중·일 관광 교류 신시대의 개막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이 제휴하여 3국을 여행의 공통 목적지로 하는 동아시아 역외 지역을 대상으로 「비짓 이스트 아시아 캠페인(Visit East Asia Campaign)」을 실시한다.

(2) 3국 관광 당국은 상기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당분간 아래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실무자 수준에서의 협의를 진행한다.

- 3국 정부관광국은 구미 등 역외 지역에 소재한 현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 프로모션의 타깃층이나 내용 등을 검토한다.
- 3국 공동 포스터 및 팸플릿 등을 작성하여 구미 지역 등의 여행박람회에서 상담회 참가, 일반소비자 대상 전시 활동 등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 3국 여행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모델 코스 공동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한다.

(3) 3국 관광당국은 동아시아의 역내·외를 연결하는 교통과 역내 주유성 향상을 위해 각국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항공노선 활용과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한·중·일 3국의 제휴 강화에 의한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관광교류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중·일 3국 관광당국 간 제휴를 강화한다. 각국의 생활 습관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문제나 쇼핑에

관한 문제, 안전의 확보, 관광교류 위기 시 상호협력 등 관광에 관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대처를 3국이 제휴해서 추진한다.

4. 차기 회의

2016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 우한 시에서 제8회 한·중·일 관광
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본 성명은 2015년 4월 12일 일본국 도쿄 도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되며, 이들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여유국 국장

일본국 국토교통성 대신